

"8일 동안 나는 조선의 왕비였느니라"



박종인의 땅의 歷史

등극 8일 만에 쫓겨난 중종 비 단경왕후릉의 비밀
 지난주 일반에게 개방된 온릉(溫陵)의 주인은 중종 첫 왕비 단경왕후
 중종반정 때 자결하려 한 유약한 남편 목숨 살린 지혜로운 아내
 반정 8일 만에 연산군 적폐로 몰려 왕비 자리 쫓겨나
 장경왕후... 문정왕후... 이후 왕비 간택에도 반정 공신들의 끝없는 간섭에 시달려
 중종릉과 문정왕후릉과 아들 명종릉은 임진왜란 때 훼손... 폐비 신씨는 사후 182년 만에 복위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한 권력투쟁의 숨은 얼굴

그동안 비공개 지역이었던 경기도 양주 온릉(溫陵)이 대중에게 개방됐다. 온릉은 조선 11대 국왕 중종의 첫 왕비인 거창 신씨 단경왕후릉이다. 1506년 중종이 왕위에 오르고 여드레 만에 이혼당한 왕비다. 연산군을 내쫓은 반정 세력에 떠밀려 왕이 된 중종은, 역시 반정 세력에 의해 강제로 이혼당했다. 작게는 한 여자의 일생, 크게는 16세기 초반 격랑에 휩싸였던 조선 왕조 정치 이야기.

조용하고 유약했던 중종

모두가 아는 바대로, 연산군은 폭군이였다. 그런 연산군에게 열두 살 어린 이복동생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역이다. 1499년 나이 열한 살에 결혼한 이역은 이듬해 민가로 나갔다. 궁을 나가던 날

형은 대신들에게 곡식 7000석과 살 집을 지어주라 명했다. 대신들이 나라 살림을 걱정해도 연산군은 막무가내였다.(1500년 2월 13일 '연산군 일기')

하지만 권력다툼 틈바구니에서 왕의 형제들은 숨죽이고 살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던 때였다. 게다가 그 형은 포악하기까지 했으니 진성대군 이역은 정말 조용하게 살았다. 어릴 적 사냥터에서 이 이복형은 "내 말보다 네 말이 궁궐에 늦게 도착하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협박해 중종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했다.(김시양, '부계기문', 1611) 그러나 곡식이고 뭇고 신축 가옥이고 뭇고 감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조용하게 살았다. 그런데 6년 뒤 그 이복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다.

중종반정과 이혼당한 두 여자

1506년 9월 2일(이하 음력) 반정세력이 궁 밖에 있는 진성대군 집에 들이닥쳤다. 마침내 이복형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한 동생이 자결하려고 하자 아내 신씨가 소매를 붙들었다. "군사의 말머리가 집을 향하지 않고 밖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공자(公子)를 호위하려는 뜻이니 알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으리." 부부가 사람을 시켜 바깥을 향해 있었다.(연려실기술, '중종조 고사본말')

반정세력은 이어 광화문에 진을 치고서 반대 세력들을 모두 죽였다. 이조판서 신수근도 그때 죽었다. 기록에 따르면, '신수근이 땅에 떨어지자 하인이 엎드려 자기 몸으로 철퇴를 막으니 이심이 모두 쳐 죽였다. 이심이 냇을 죽이니 피가 튀어 얼굴에 가득하고 옷이 온통 빨개졌으나 공(功)을 보이기 위해 며칠 동안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이자, '음애일기', 16세기 초)

남편 자살을 저지했던 지혜로운 아내는 바로 신수근의 딸이였다. 쿠데타 일주일 뒤 반정세력은 "신수근의 친딸이 궁궐에 있으니 밖으로 내치라"고 새 왕에게 요구했다. 왕은 "심히 마땅하지만 조강지처를 어찌하랴"고 답했다. 즉각 그들이 반격했다. "대계를 위해 결단하시라." 그러자 왕은 머뭇대지 않고 "마땅히 밖으로 내치겠다"고 답했다. 그날 저녁 신씨는 궁궐 밖으로 축출됐다.(1506년 9월 9일 '중종실록') 다음날 "신씨가 나갔으니 왕비 책봉 차비를 미리 거행하라"는 요구를 왕은 그대로 수용했다. 또 보름 뒤 반정세력인 구수영이 "내 아들이 연산군의 사위였는데, 이제 장인이 조인이 됐으니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했다. 왕은 이 또한 허락했다. 여전히 유약했던 왕은 자기의 이혼도, 남편 이혼도 모두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8일 만에 쫓겨난 왕비와 이혼당한 연산군의 딸 휘신공주는 오래도록 한집에 살며 한을 삭였다.

끝없이 휘둘린 중종



▲ 단경왕후 신도비. 6·25 때 총격 흔적이 처참하다(왼쪽). 오른쪽은 전남 화순에 있는 중종 때 사람과 조광조의 유허비. 조광조는 거친 개혁 드라이브 끝에 유배지인 화순에서 사약을 받았다.



1년이 지난 1507년 8월 마침내 새 왕비가 책봉됐다. 반정 공신 우두머리 박원종의 사돈 집안인 후궁 파평 윤씨였다. 1515년 봄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열세 뒤 왕비는 "꿈에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억명(億命)'이라 하라"고 말하고 죽었다.(1515년 3월 7일 '중종실록') 역명은 훗날 중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인종이다. 왕비는 장경왕후 시호를 받았다.

1517년 중종은 장경왕후의 8촌인 파평 윤씨를 간택해 새 왕비로 삼았다. 문정왕후다. 중종은 후궁이 여럿 있었으나 이들 또한 권력 투쟁 과정에 모두 배제됐다.

17년 만인 1534년 드디어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다. 그때 장경왕후 소생 왕자 역명은 열아홉 살이었다. 10년 뒤 중종이 죽고 세자 역명이 인종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1년 뒤 인종이 어이없이 죽었다. 역명이라는 이름과 달리 서른 살에 요절했다. 세자도 없었다. 그리하여 권력을 등에 업고 미모를 내세워 활개 치던 후궁들 틈에서 절치부심하던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명종이다.

자기를 살려준 조강지처였으니 중종 또한 복위 논의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공신들

이 반대하자 중종은 "왕후가 죽자마자 울분을 품어왔다고 말하니 평소 마음을 알겠다"며 이들의 벼슬을 박탈하고 귀양을 보내버렸다.(연려실기술 '중종조 고사본말')

1517년 중종은 장경왕후의 8촌인 파평 윤씨를 간택해 새 왕비로 삼았다. 문정왕후다. 중종은 후궁이 여럿 있었으나 이들 또한 권력 투쟁 과정에 모두 배제됐다.

17년 만인 1534년 드디어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다. 그때 장경왕후 소생 왕자 역명은 열아홉 살이었다. 10년 뒤 중종이 죽고 세자 역명이 인종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1년 뒤 인종이 어이없이 죽었다. 역명이라는 이름과 달리 서른 살에 요절했다. 세자도 없었다. 그리하여 권력을 등에 업고 미모를 내세워 활개 치던 후궁들 틈에서 절치부심하던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명종이다.

끝내 아내를 찾지 않은 남편
 그사이에 중종은 혁신 사

▲ 단 7일,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비의 자리에 앉았다 폐비된 비운의 여인 단경왕후 신씨를 둘러싼 중종과 연산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로맨스 사극 드라마의 포스터

림과 조광조를 등용했다. 끝없이 공신들을 공격하는 사림을 공신들은 두고 보지 않았다. 후궁들과 연합해 조광조를 역적으로 몰았다. 폐비 신씨 복위를 주장하며 중종 역린을 건드리기 시작한 조광조는 결국 1520년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어 벌어진 공신들 내부 투쟁에서 후궁 경빈 박씨가 주술을 동원한 역모에 휘말려 죽었다.

폐비 신씨는 서울 인왕산 치마바위에 하루같이 다홍치마를 걸어놓고 남편을 그리워했다는 민담도 전한다. 하지만 남편 진성대군, 국왕 중종이 그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아내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징벌로 배척했던 남편이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죽었을 때 해산을 돕던 의녀 장 (...11페이지에 계속)



▲ 서울 강남에 있는 중종의 능 정릉. 정릉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불태워 텅 비어 있다. 함께 있는 성종 부부 능인 선릉도 훼손됐다.